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<input type="checkbox"/> 우한신항(武汉新港), 양루어(阳逻)컨테이너 3기공사 착공	2
<input type="checkbox"/> CMHI, 서아프리카 토고항에 1억 8,800만달러 투자하여 50% 지분 획득	3
<input type="checkbox"/> BAL(Bollere Africa Logistics) 터미널 확장 및 개선 목표 추진	5
<input type="checkbox"/> 앙골라, Caio 심수항 건설 및 운영 사업 공사 시작	6

□ 우한신항(武汉新港), 양루어(阳逻)컨테이너 3기공사 착공

- 우한신항은 장강 중상류지역의 최초 “억 톤급 항만”으로 성장하였음
 - 중국 후베이성(湖北省)에 위치한 우한신항은 2010년 물동량 1억 톤을 돌파하며 장강 중상류지역 최초의 억 톤급 항만으로 성장하였음
 - 2011년 우한신항 컨테이너물동량은 71.4만 TEU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9.8% 증가하였음
 - 우한신항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장강중류해운센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후베이성에서 계획하고 있는 “양권일대(两圈一带)”¹⁾ 발전전략의 중점프로젝트로, 건설계획기간은 4년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만경제발전 및 일대 산업구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2012년 8월, 우한신항 컨테이너 핵심항만인 양루어컨테이너 3기공사를 정식으로 착공함
 - 2012년 6월 28일, 양루어컨테이너 3기공사와 관련된 4개 선석 건설 타당성에 대해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정식 비준을 받고, 8월 27일 공사를 정식으로 착공하였음
 - 새롭게 건설되는 3기 공사를 통해 5천 톤급, 1만 톤급 컨테이너부두 총 17개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사가 완공되면 80만 TEU의 연간처리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
 - 프로젝트에 총 투입되는 비용은 40억 위안(약 6억 3천 달러)이고, 공사기간은 2년 6개월임
 - 1기, 2기공사는 이미 준공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처리능력은 480만 TEU임
- 이번 우한신항 양루어컨테이너 3기공사는 우한신항의 규모 확충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임
 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강 중상류지역에서 양루어항의 효율성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주요 허브항으로서의 지위 또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
 - 이번 프로젝트는 장강중류해운센터와 관련된 중점 공사이자 후베이성의 항만운송량과 해상운송 종합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발휘할 것임
- 우한신항의 이러한 발전은 후베이성 장강 중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대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

자료 : www.chinaports.org, 2012.8.28

강지현 연구원 (☎ 02-2105-2967, jhkang0813@kmi.re.kr)
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1) 양권일대(两圈一带): 후베이성 총체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'2개 권역과 1개 벨트'를 뜻하는 말임. 양권은 우한 도시권(武汉城市圈)과 어시생태문화관광권(西生态文化旅游圈)을, 일대는 장강경제벨트(长江经济带)를 지칭함

□ CMHI, 서아프리카 토고항에 1억 8,800만달러 투자하여 50% 지분 획득

- 중국의 선도 항만 운영사인 CMHI(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)는 MSC 선사가 15년간 이용할 서아프리카 로메 컨테이너 터미널(Lomé Container Terminal, LCT)의 지분을 50% 획득함
 - CMHI는 토고(Togo)의 수도 로메(Lomé)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TML(Thesmar Maritime Limited)에 1억 8,800만 달러(1억 5천만 파운드)를 투자하여 50%의 지분을 획득했음
 - TML은 토고 정부로부터 LCT의 개발 및 운영권(35년간 항만 사용 허가와 추가적으로 10년간 연장 가능 조건)을 획득했음
 - MSC는 TML의 모회사인 TIL¹⁾과 양자 계약을 통해 LCT 터미널 운영 시작일로부터 15년간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함
- CMHI가 투자한 토고항의 LCT는 기니만(Gulf of Guinea)에 위치해 있으며,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완공 예정인 유일한 심수 컨테이너 터미널임
- CMHI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토고항의 LCT²⁾는 최대 22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2013년 12월 내에 400m 1개 선석(Quayline)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
- 이러한 사실은 CMHI 반기 수익보고서와 함께 발표되었는데, CMHI의 2012년 반기 순이익은 자회사의 실적 저조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 - CMHI 2012년 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55% 감소한 17.6억 홍콩달러(2.25억달러)를 기록했음
 - 그리고 지난주 CMHI가 최대주주로 25%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(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)³⁾도 순이익이 64% 감소한 274억 위안을 기록하였음
- CMHI는 이러한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세를 고려하여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 밝힘
 - 서아프리카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10.3%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높음
 - CMHI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(Lagos)에 위치한 틴캔섬 컨테이너 터미널(Tin-can Island Container Terminal)의 투자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, 이에 아프리카 지역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

1) TIL(Terminal Investment Limited)그룹은 TML의 모회사로 터미널 이용에 있어 세계 제 2위 선사인 MSC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음. TIL그룹은 전세계에 24개의 운영하는 터미널과 LCT를 포함하여 4개의 건설 중인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음

2) LCT의 총 야드 규모는 53헥타르이며, 총 선석길이는 1,050m(선석 4개)임

3)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제조업체이며, 중국 최대의 반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생산업체임

< 로메 컨테이너 터미널(LCT) 위치 >



< 토고의 로메항 전경 >



자료 : www.lloydlist.com/www.cmhi.com.hk/www.seatrade-asia.com, 2012.8.30

이언경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919, eklee@kmi.re.kr)

□ BAL(Bollere Africa Logistics) 터미널 확장 및 개선 목표 추진

- 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50년간 터미널 운영 경험을 갖추고, 2012년 현재 13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BAL사는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 및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
 -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터미널(콩고의 Pointe-Noire, 토고의 Lome, 기니의 Conakry, 시에라리온의 Freetown 등)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11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터미널에서 3.6백만 TEU를 처리
- 아프리카 지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Dwell time이 매우 길다는 것임
 - Worlbank는 아프리카 터미널 운영 조사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항만의 평균 Dwell time은 약 20일로서 세계 평균인 4일의 5배로 조사됨
- BAL사는 이와 같이 Dwell time이 긴 것은 선박 하역, 통관, 서류처리, 배후수송 네트워크 등 4가지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함
 - 최근 아프리카 지역 항만의 운영권 입찰 시 항만의 하역 생산성 향상이 가장 핵심적 협의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Dwell time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
 - 통관의 경우 과거 대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, 서류 처리와 도로, 철도 등 배후수송망 확보는 아직 매우 낙후된 상황임
- 이러한 상황에서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대형 선박이 입항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설 소요와 기존 시설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
 -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Cascade 효과로 아프리카 지역에도 남북 항로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5천 TEU급을 12,500TEU급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운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의 평균 규모는 약 3천 TEU급이나, 최근 Maersk, CMA-CGM이 4,500TEU급 선대를 우선 교체 투입함
 -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선박 규모는 5천~7천 TEU급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현재 아프리카 지역 항만의 경우 공공소유가 일반적이며, 향후 해외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
 - 특히, 사하라 이남 국가의 항만 대부분은 공공소유이지만,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간투자의 물결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

자료 : www.lloydslist.com, 2012.8.17

황현주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julya7@km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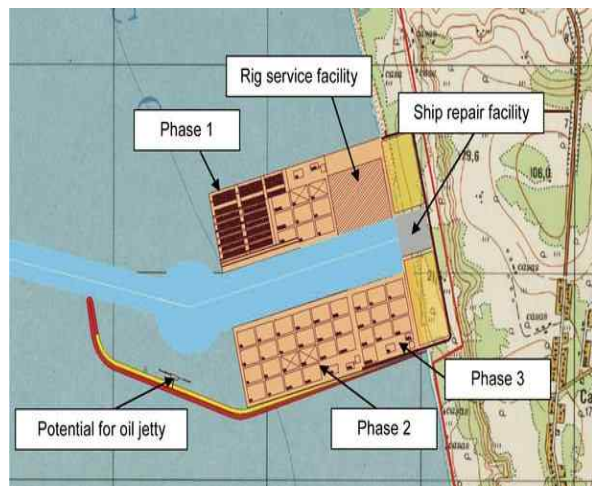
□ 앙골라, Caio 심수항 건설 및 운영 사업 공사 시작

- 앙골라 본토의 북쪽에 위치한 카빈다(Cabinda)지역¹⁾에서 카이오 심수항(Port of Caio)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공사를 지난 8월부터 시작
 - 카빈다지역은 앙골라 석유 수출의 65%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, 목재, 천연가스, 귀금속, 광물등도 풍부한 지역임
- 카이오항 사업은 민관합작투자(PPP: Public-Private partnership) 방식으로 진행되며 3년 동안 3단계로 진행되어 2015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
 - 1단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6억 달러이며, 그 중 금융기관은 3억 6천만 달러, 외국 투자자들은 6천만 달러, 앙골라 정부는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
 - 또한 앙골라 정부는 5년 동안 카빈다지역의 항만부문에 10억 달러 투자를 목표로 함
- 카이오항은 1단계 개발 시 775m의 안벽이 건설될 예정이며, 3단계 개발 완료 시 안벽길이는 총 1,925m, 컨테이너 야드 부지는 3,690ha가 될 예정
 - 본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1,000개, 장기적으로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
- 한편, 카이오항만 대표 Bastos de Morais는 카이오항 건설이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의 결과이며, 본 사업을 통해 카빈다지역에 고품질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

< Caio항 위치 >



< Caio항 개발계획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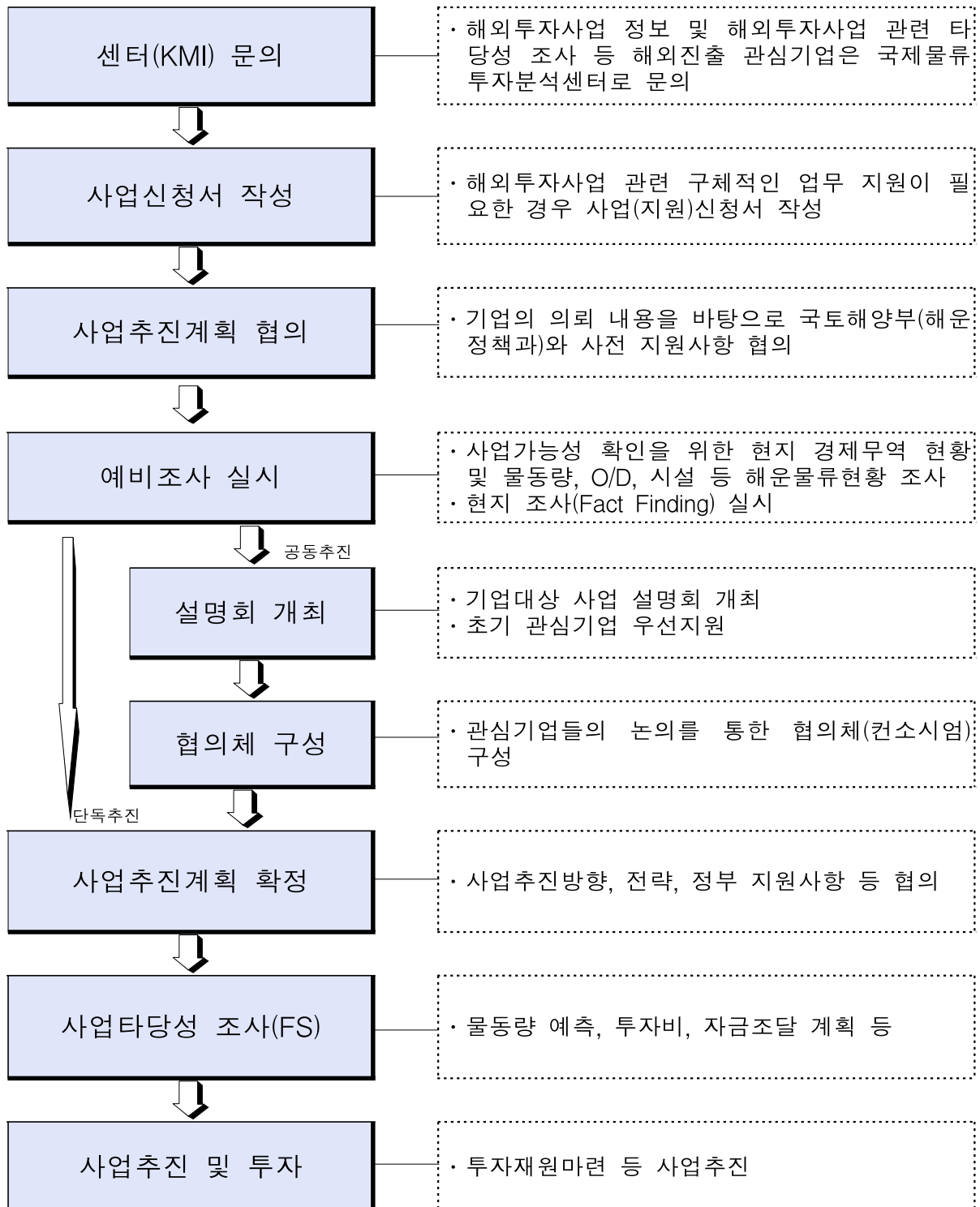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www.ship-technology.com, 2012.8.23

최은혜 연구원 (☎ 02-2105-2838, choeeunhye@kmi.re.kr)

1) 앙골라 본토와 콩고 민주공화국 영토를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구는 약 30만명 이며, 면적은 약 7,000km임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